넓은 좌석과 적재량…미니밴과 함께라면 여행이 즐거워진다

국산 미니밴 4종 비교해보니…

카니발, 더 편해진 좌석…가족여행에 딱
올란도, 1~3열 좌석 극장식 설계 돋보여
코란도 투리스모, 국내 유일 4WD 미니밴
카렌스, 평일엔 출퇴근용·주말엔 레저용

아웃도어 레저와 캠핑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뚜렷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4년 1~5월 국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SUV와 RV, 미니밴 등을 포함한 레저용 차량의 판매량이 15만6308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27%를 차지했다. 3대 중 1대는 레저용 차량인 셈. 다양한 레저용 차량들 중에서도 최근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바로 미니밴이다. SUV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여행과 레저를 즐길 수 있으며, 9인승 이상 미니밴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차체 크기는 SUV와 비슷하거나 약간 큰 편이지만 주차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치를 적용해 운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대표적인 국산 미니밴 4종의 특징을 살펴봤다.

●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미니밴, 카니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카니발의 가장 큰 매력은 스타일이다. 투박한 아저씨 타입의 미니밴에서 젊은 아빠 느낌의 세련된 스타일로 변신했다. 기존 모델 대비 높이는 40mm 낮추고 축거(휠베이스)는 50mm 늘리는 다이어트를 감행한 것이 주효했다. 누가 봐도 참 멋있다.

운전도 편리하다. 차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차세대 차체제어장치와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을 바꾸면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경보해주는 차선이탈 경보시스템도 갖췄다. 주차 걱정도 없다. 누구나 쉽게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차조향 보조시스템(SPAS)을 갖추고 있다.

실내 공간도 더욱 여유로워졌다. 9인승 모델의 경우 시트 구성을 기존 3열에서 4열로 조정하고 독립시트를 적용해 더 쾌적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4열에는 세계 최초로 팝업 싱킹 시트를 적용했다. 필요시 4열을 접어서 바닥으로 숨기면 최대 546L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열 공간도 더 여유로워졌다. 4열 시트를 접은 후 3열을 뒤로 밀 수 있어 탑승자들의 거주성을 높였다. 스마트키를 지닌 채 차량의 뒤쪽으로 이동하면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뒷문이 알아서 열리는 '스마트 테일게이트'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



한국지엠 쉐보레 올란도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기아자동차 카렌스



●넓고 실용적인 패밀리밴, 올란도

7인승의 콤팩트한 디자인을 갖춘 한국지엠의 올란도는 EZ-Tech 기술을 적용해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원터치로 시트를 폴딩해 뒷좌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2·3열은 폴딩하면 완전히 평평한 공간이 확보된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다.

내부의 수납공간에도 세심함이 담겨있다. 센터콘솔 트레이에 2개의 컵 홀더를 마련했다. 탬버형 덮개가 적용된 콘솔박스를 탑재해 깔끔한 정리가 가능하다. 또 트렁크 하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어 트렁크 수납함을 적용했다. 센터페시아 속 시크릿큐브 공간에는 iPod, MP3플레이어 등을 연결할 수 있는 USB포트와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깜찍하게 숨어 있다.

또 선바이저 화장거울 조명을 동반석까지 확대했다. 운전자가 3열좌석의 승객까지 눈을 맞추며 대화할 수 있도록 컨버세이션미러도 장착되어 있다. 1열부터 3열까지 좌석을 극장식으로 설계한 것도 눈에 띈다. 탑승 인원 모두가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4륜구동 미니밴, 코란도 투리스모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의 최대 장점은 사륜구동(4WD) 시스템이 탑재돼 있는 국내 유일의 미니밴이라는 점이다. 카니발, 토요타의 시에나 등 경쟁모델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기도 하다. 빗길, 눈길, 험로 등에서 탁월한 안정감을 발휘한다.

커다란 차체 크기를 잊을 만큼 운전도 편안하다. 일상 가속 영역인 시속 120km까지는 승용차와 다름없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구동에 베이스를 둔 설계 덕분에 코너링과 승차감이 전륜구동 차량에 비해 훨씬 안락하다. 고급 대형차들이 대부분 후륜구동 차량인 것도 이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인 체어맨 W와 동일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해 정숙성을 높이고 잔진동을 줄였다.

안전시스템도 충실히 갖췄다. 악천후, 급선회 등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량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엔진 출력 및 브레이크를 스스로 제어해 차량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ESP(차량자세제어시스템)가 적용됐다. ARP(차량 전복방지장치), 브레이크 페달을 충분히 밟지 못했을 때 전자적으로 판단해 제동력을 신속히 증대해주는 BAS(브레이크 보조시스템) 등이 장착돼 신뢰감을 준다.

●승용 감각의 운전이 편리한 미니밴, 카렌스

차체 높이가 4cm 낮아지면서 안정감과 스타일이 살아났다. 기아차 K시리즈의 디자인을 접목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풍긴다. 실내에 앉으면 이전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련미가 느껴진다. 중형 세단인 K5에 앉은 듯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계기판 각종 버튼 등도 만족감을 준다. 버튼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누구나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수입 미니밴을 만난 듯한 느낌이다. 평소에는 출퇴근용 세단, 주말에는 레저용 미니밴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을 보면 특히 2열 시트가 편리하다. 2열 레그룸(940mm)과 2열 숄더룸(1440mm)이 기대 이상으로 넉넉해 4인 가족이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2열 시트를 뒤로 16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과 앞뒤로 18cm를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도 갖췄다.

주행 성능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하며 안정감이 느껴진다. 차체자세제어장치(VDC)와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MDPS)을 통해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VSM(차세대 VDC)이 장착된 덕분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 국산 미니밴 4종 주요 제원

구분	카니발	올란도	코란도투리스모	카렌스
엔진	R2.2 E-VGT 디젤	I4 직분사 디젤	I4 직분사 디젤	I4 직분사 디젤
배기량	2199cc	1998cc	1998cc	1685cc
최고출력	202마력	163마력	155마력	140마력
최대토크	45kg.m	36.7kg.m	36.7kg.m	33.0kg.m
승차인원	9, 11인승	7인승	9, 11인승	5, 7인승
연비	11.2~11.5km/l	12km/l	11.3km/l	13.2~14km/l
구동방식	전륜구동	전륜구동	파트타임 4륜구동	전륜구동
변속기	자동 6단	자동 6단	자동 5단	자동 6단
가격	2720만~3630만원	2267만~2828만원	2894만~3627만원	2095만~2540만원

공인인증서, 유심에 보관하니 안심

통신 3사 유심 기반 '스마트인증' 출시
보안 1등급 매체 지정…외부 복제 불가능

이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에 저장·보관할 수 있다. 국내 통신 3사는 고객정보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심 기반의 공인인증서 서비스 '스마트인증'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폭넓게 이용되는 수단이다. 하지만 각종 악성코드를 통한 탈취사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안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스마트인증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유심칩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차세대 공인인증서비스다. 특히 스마트폰 유심과 공인인증서를 일체화함으로써 외부 복제가 불가능해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게 통신 3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기반 인증 방식에 대해 보안토큰과 마찬가지로 보안 1등급 매체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스마트인증 서비스는 휴대성이 높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에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도 우수하다.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인증'을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가입할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금융권과 공동 협력해 스마트인증 서비스 확산에 노력할 것이다"며 "향후에도 유심을 활용한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4K쿼드영사시스템' 도입

아시아 최초…기존 2K에 비해 화질 2배

기네스북 공식 인증을 받은 세계 최대 스크린을 보유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가 4K영상을 볼 수 있는 최첨단 영사기를 도입했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는 세계 최대 스크린이 설치된 메인 상영관 '수퍼플렉스 G'에 아시아 최초로 '4K쿼드영사시스템'을 도입했다.

4K영사기는 기존 디지털 영화의 2K 해상도 영사기보다 2배 높은 고화질을 볼 수 있는 영사시스템. 4K쿼드영사시스템은 이러한 4K 영사기 4개를 동시에 스크린에 투사해 선명한 화질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새 영사시스템과 함께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의 6개 상영관에 첨단 음향 시스템인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시스템도 도입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기아자동차 'K7 2015' 출시

기아차의 준대형 세단 K7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됐다. 새롭게 선보인 'K7 2015(사진)'는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신규로 적용하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점등 이미지를 기존보다 날렵하게 디자인했다. 또 트렁크 내부 하단 크롬 장식, 신규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알로이 휠과 전면가공 17인치 알로이 휠을 장착해 준대형 세단의 고급감을 더했다. 앞좌석 통풍시트,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 자외선 차단 글라스(윈드 쉴드), 에어로 타입 와이퍼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트림도 엔진별로 단순화했다. 2.4 프레스티지 2960만원, 3.0 프레스티지 3300만원, 3.3 노블레스 3950만원이다.

현대차 터키공장 누적생산 100만대 돌파

현대자동차는 14일(현지시간) 현대차 터키공장 누적생산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생산된 100만번째 차량은 독일로 수출 예정인 i10이다. 현대차는 2007년 터키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6만대에서 10만대로 늘린데 이어, 지난해 6억900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생산량 20만대 체계를 갖췄다. 현대차는 연간 생산량 30만대의 체코공장과 20만대의 터키공장을 두 축으로 유럽생산 50만대를 달성하고 유럽시장에 본격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타이어, 벤츠에 '런플랫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가 메르세데스-벤츠 뉴 C-클래스와 BMW 뉴 미니에 신차용 런플랫 타이어 공급을 시작했다. 한국타이어가 공급하는 상품은 대표적 초고성능 타이어인 '벤투스 S1 에보2'의 런플랫 버전이다. 런플랫 타이어는 펑크로 인해 타이어 안의 공기가 없어져 공기압이 감소해도 일정한 속도(보통 80km)로 100km 전후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를 말한다. '벤투스 S1 에보2(Ventus S1 evo2)'는 3세대 런플랫 타이어로 열 발생 제어 기능을 강화했다.

대학생이 생각하는 결혼비용 '약 8400만원'

비용 부담 남녀격차 줄어드는 추세

서울시내 대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비용은 8400만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결혼비용으로 평균 8368만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유계숙 교수가 2012년 5월과 6월에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중 미혼이면서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한 38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학생은 1억814만원, 여학생은 5974만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 5000만원 정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결혼문화연구소가 2011년 전국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23쌍의 실제 결혼비용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에 비해 남학생은 약 5000만원 적게, 여학생은 약 1000만원 정도 많게 응답한 수치다.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 결혼비용 부담의 남녀격차가 줄어들고,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으로 변모해간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도 남학생들의 기대비용이 5000만원 정도 많다는 점에 비춰볼 때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의 결혼문화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기대결혼연령은 평균 29.76세(남 30.63세, 여 28.90세)로 만혼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기대하는 본인부담 결혼비용이 많을수록 기대결혼연령은 지연되는 결과가 나왔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